

4/12/26

설교 제목: 열 두 제자의 임명과 파송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마태복음 10 장 1-15 절

**열두 제자를 부르시다(막 3:13-19; 눅 6:12-16)**

(마 10:1)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제자에게 명하여 이르시다(막 6:7-13; 눅 9:1-6)**

(마 10:2)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마 10:3)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마 10:4)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 10:5)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마 10:6)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 10:7)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마 10:8)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 10:9)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마 10:10)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마 10:11)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마 10:12)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마 10:13)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마 10:14)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마 10: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기진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모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한탄하십니다.

(마 9:35)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 9:36)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 9:37)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마 9:38)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는 열 두 제자를 공식적으로 임명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기에 앞서 당신의 권능을 주십니다.

당신이 행하여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귀신을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마 10:1) 예수께서 그의 열 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으나 이제 직접 사역의 당사자로 보냄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열 둘로 특정하신 것은 새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상징한 것입니다.

열 두 족장이 옛 시대의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들 열 두명의 제자들이 새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면면을 보면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학식을 갖춘 사람들도 아니었고 상당한 지위나 신분을 가진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만으로 종교를 전파할 능력이 없는, 그저 보고 들은대로 전달할 수 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열 두 제자들의 명단입니다.

(마 10:2)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마 10:3)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마 10:4)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제자 명단에 시몬 베드로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제자 중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열 두 제자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신실한 예수의 증인으로 변화되어 초대 교회의 기둥같은 존재로 활약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 그의 행적에 대해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설에 의하면 바벨론까지 선교 활동을 하다가 말년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뒤를 이어 베드로의 형제이자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시킨 안드레의 이름이 나옵니다.

설에 의하면 그는 스구디아 헬라 소아시아 등지에서 선교하다가 AD 70 년경 파드라에서 X 자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다음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더불어 예수님께 각별히 인정을 받았던 3 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붙여 줄 만큼 기질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야고보는 AD 44 년 헤롯 왕 아그립바에 의해 참수되어 사도들 중 최초로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그의 형제 요한은 사도들 중 가장 오래까지 생존했습니다.

AD 70 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에베소에 정착하여 선교 교육에 전념하다가, AD 95 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밧모섬에 유배되었고, 그 다음 해 넬바 황제 때에 에베소로 돌아와 지속적인 복음 사역을 감당했으며, 트라얀 황제 때에 이르러 생을 마감했습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같은 벵새다 출신으로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로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설에 의하면 그는 아시아의 로마 식민지에서 사역하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바롤로매는 나다니엘과 동일 인물로 추정합니다.  
빌립과 친구였고 빌립이 그를 예수님께 소개했습니다.  
가나 출신으로 예수님이 네가 혼자 조용한 곳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고 칭찬을 하실 만큼 신실하였습니다.  
설에 의하면 그는 애굽 인도 알마니아 등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지만 용기 있고 바른 신앙 고백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설에 의하면 그는 인도와 파르티아에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세리 마태는 본 책의 저자입니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별하여 작은 야고보로 불립니다.

다대오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명단과 비교하여 봤을 때 야고보의 형제(아들) 유다로 봅니다.  
설에 의하면 시리아 알마니아 등지에서 활발한 선교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가나나인 시몬은 부름받기 전 유대 민족의 전통과 종교를 강력히 지지하던 국수주의적인 단체 셀롯당의 일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롯 유다 이름이 등장합니다.  
저자 마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롯 유다의 배신까지 언급하며 가장 불명예스러운 제자임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는 열 두 제자 중 회계를 맡고 있었으나 지나친 물욕으로 인해 스승인 예수를 은전 30 냥을 받고 완악한 대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이 일로 열 두 제자에서 탈락하고 대신 맛디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열 두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하는데, 사도는 본래 헬라어 '아포스텔로'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냄을 받은 자' '사신' '전권 대사' '선교사' '대리자' 등의 의미를 가지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을 위임받아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된 특사 또는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 확장에 선도적 역할을 감당할 예수의 증인들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부활하고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과 동행한 자  
둘째,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자  
셋째,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사도라는 용어는 보다 광의적 의미로 사용되어 열 두 제자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의 수많은 전도자들, 바울과 바나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살루아노, 예수의 형제들 등에게도 지칭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사역지에 파송하시며 필요한 행동 지침을 주십니다.

전도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명령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마 10:5)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마 10:6)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시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이방의 빛인 이스라엘의 회복은 열방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사역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한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당신이 보여주었던 것과 동일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마 10:7)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마 10:8)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자들이 선포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기습적인 도래입니다.

이미 도래했으나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천국을 준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도래를 실증적으로 확인시키는 이적 곧 신체적인 치유(병든 자를 고치는 것), 존재론적 치유(죽은 자를 살리는 것), 종교 의식적인 치유(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 영적 정신적인 치유(귀신을 쫓아내는 것)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행할 때 대가를 받지 말고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이같은 능력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당신이 거저 주신 것이기에 이 능력을 가지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역의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을 일꾼으로 보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마 10:9)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마 10:10)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명령은 물질적인 욕구의 절제를 명한 것인 동시에 절대적이고 풍성한 후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을 믿고 살아가는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이런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역에 대한 반응과 반응에 따른 결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합당한 자를 찾아 거기서 머물며 그곳을 사역의 거점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마 10:11)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란 천국 메세지에 호의를 가지고 있는 자로 윤리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자기가 머문 그곳을 기점으로 그 동네를 복음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경건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자의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고 하십니다.

만일 그 집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르침에 순종하면 제자들이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 10:12)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마 10:13)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과 인격을 통해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의 통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 집이 제자들을 배척하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명하십니다.

주의 제자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 먼지를 떠는 행위는 그들이 구원의 복음과 무관한 자들로 끝내 심판에 처해질 것이라는 의미의 상징적 행위입니다.

(마 10:14)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마 10: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이 선포된 후에는 영생과 축복이 따르거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뒤따릅니다.

수용은 축복이고 거절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열 두 제자를 불러 세우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주신 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실증적으로  
확인시키는 이적들 곧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는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도래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사역은 열 두 제자의 파송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 오시기까지 계속됩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불러 세우시고 당신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이 일은 실로 사람들의 생사를 가르는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복음 선포 후 그들이 복음을 받아 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들의 영생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신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말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믿고 맡기신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끝까지 충성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